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학생부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대학의 건학이념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학생의 소질, 적성, 인성, 환경, 창의성 및 잠재가능성 등을 학업 성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형요소를 총체적, 다면적, 정성적 평가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2007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이후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특징은 전체 모집인원 감소, 수시모집 선발비중 증가,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의 지속적 증가,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 선발 정착 등이다[1].

학생부교과전형은 '15학년도 38.9%(146,145명), '16학년도 38.5%(140,615명), '17학년도 39.8%(141,729명)를 선발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은 '15학년도 16.1%(60,619명), '16학년도 18.9%(69,043명), '17학년도 20.5%(72,772명)을 선발함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증가는 고교와 대학의 다각적 연계 방안을 필요로 한다.

고교와 대학의 연계는 고등학교의 교육이 대학의 교육으로 원활하게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용면에서는 개별 학습자 고유의 능력, 개성, 흥미 등이 고교를 거쳐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단절 될 없이 충분히 개발·발휘될 수 있도록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며 방법 면에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2][3].

입학사정관제의 실시와 함께 고등학교와 대학의 연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고교-대학 연계는 교육활동의 연계, 인적·물적자원의 연계, 입시 연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학습형 연계, 진로형 연계, 선발형 연계, 연계시스템 등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고교-대학의 연계는 비단 국내에서만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아니며 최근 외국의 교육동향으로 중요한 교육이슈 중 하나는 고교-대학 연계이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고교-대학연계 프

로그램 참여에 따른 진로진학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는 고교-대학연계 방법을 탐구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선발 전-선발-선발 후의 장기적 로드맵을 통해 선발 학생의 고교의 다양성, 지역적 다양성, 경제적 다양성 실현을 도모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 구현 및 대학의 책무성과 직결된다. 선발주체인 대학이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을 다양한 전형요소로 선발함에 있어, 고교 현장과의 연계성이 선행되지 않으면 고교교육의 정상화 실현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대학 연계 참여가 진로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대상은 K대학의 재학생 및 서울·경기도 소재 재직 중인 고교교사이다. 대학생은 2014학년도 K대학교 신입생으로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 전형),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논술우수자 전형, 정시전형, 기타 전형별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교사는 컨퍼런스, 학교방문 설명회, 워크숍 등 K대학교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 및 교사자문단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고교-대학 연계 모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대학 연계 참여 현황과 진로탐색 및 대학진학에 미치는 도움정도를 성별, 입학전형별 배경적 변인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둘째, 고교-대학 연계와 고교 교육과정의 관련성 정도를 분석하여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고교-대학 연계방법을 모색한다.

셋째, 고교-대학 연계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개선방법을 모색하고 선도적인 고교-대학 연계 방법을 제시한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K대학교 2014학년도에 입학한 1학년 재학생 및 서울·경기도의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와 해석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조사방법을 질문지만으로 함으로써 질문지 조사법의 단점을 간과할 수 없다.

셋째, 변인측정을 학생 및 교사들의 지각에 의해서만 행하였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로는 제한점이 따른다.

II. 이론적 배경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4]에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의 주요 추진배경으로 우수학생에 대한 개념적 변화를 볼 수 있다. 즉,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확실적인 정량 지표로 나열화 되었던 성적순위에서 벗어나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특기, 리더십, 봉사정신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추어 글로벌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인재로 확대 된 것이다. 정부가 추구하는 창의인재 양성은 기존의 확실적인 정량적인 평가방법으로 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정성적, 총체적인 평가방법의 도입을 모색하게 되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5]는 대입전형 선진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성적을 포함하여 인성·창의성·사고력·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학사정관계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 의존을 줄이는 중요한 대안으로 생각하였다. 입학사정관계는 대학의 건학이념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학생의 소질, 적성, 인성, 환경, 창의성 및 잠재가능성 등을 학업 성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형요소를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총체적, 다면적, 정성적 평가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6]. 한편, 입학사정관계는 성적위주의 입시관행 개선을 위해 고등학교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대교협과 개별대학의 차원에서 고교-대학 간 협력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입학사정관계 운영 공통기준[7]을 통해 대학은 정보제공, 교사연수, 설명회 및 협의회 등 고교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교-대학 연계를 추진해야 함을 밝히고 있어 입학사정관 전형이 고교-대학 연계를 제도적으로 지향함을 알 수 있다.

입학사정관계의 성공은 고교-대학 간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은 정보교류, 전공진로탐색, 입시설명회 및 상담, 대학의 인적·물적 지원, 모의전형 및 컨설팅, 컨퍼런스, 교사자문단 간담회 및 교사와의 공동연구, 동아리연계, 봉사활동 연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교-대학 연계를 실천해오고 있다. 그러나 고교 현장에서는 대학의 더 많은 정보제공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대학은 사회적 책무성 실현 및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효과적인 고교-대학 연계방법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고교-대학 연계 유형으로는 학습형 연계, 진로형 연계, 선발형 연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습형 연계는 고교 교과교육의 내실화와 심화 교육을 위해 고교와 대학이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방법을 함께 협의하고 교사와 교수, 대학생, 우수시설 등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교류,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형 연계는 고교와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협력을 통해 고교생의 진로 탐색 과정에 대해 대학의 학문분야, 교육내용, 입학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 안내,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발형 연계는 고교와 대학이 물적·인적 자원을 교류, 협력하고 그 결과를 선발에 활용하는 것으로 소극적인 선발 연계와 적극적인 선발 연계로 구분할 수 있다[8].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매년 대학별 운영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를 통하여 좋은 정보를 교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은 2014년 입학사정관계 사례발표 워크숍에서 발표되었던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대학	프로그램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진학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고교-대학 간 교육 연계 인성, 진로, 진학, 전공 영역 프로그램 제공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지원 수요자 중심의 입학사정관계 정보 제공 프로그램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설명회 등 입학생 자문단 중심의 멘토링 운영 소외지역 고교대상 설명회 및 교사 간담회 진행 학부모대상 정보제공 프로그램 등 고교-대학 정보 교류 체제 고도화 및 대입전형의 내실화 교사자문단과의 고교-대학 간 정보 교류의 장 확대 고교 현장에 대한 이해 제고 고교-대학 연계 공동연구를 통한 대입전형의 내실화 도모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J-H Concert 홍보 3Star 프로그램(교내) - Star 전공트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r 체험트랙 - Star 모의전형 • 5 J-H 프로그램(교외) -J-H 전공콘서트 -J-H 탐방대 -J-H 봉사활동 -J-H 모의면접 시연 -J-H 동아리연계 •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체험활동 진로진학 전공탐색 고교생 전공체험 • 고교생 캠퍼스 투어 • 동아리연계 프로그램 • 찾아가는 입학사정관제 설명회 • 입학사정관 1일 명예교사 프로그램 • 모의전형 • 진로진학상담교사 네트워크 • 고교 자문위원회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체험 프로그램 입학사정관제 UCC 동영상 콘텐츠 Dream High I II 전공 및 동아리 탐색 Dream Together III 봉사 나너드림 봉사 동아리 학습상담 동아리 창의인성 캠프 창의인성 워크숍 • 모의체험 프로그램 Dream Package I 모의체험(지역별) Dream Package II 모의체험(권역별) Weekend 모의체험 교실 Dream Together I 모의실전 체험 Dream Together II 모의실전 체험 • 고교 현장 소통 강화 • 입학사정관제 홍보대사 'Dreamer'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 찾아가는 고교 방문 - 진학담당교사 초청 방문 프로그램 - 찾아가는 진로 · 적성 특강 - 전공체험 프로그램 - 입학사정관전형 모의체험 프로그램 • 고교-대학 간 협의체 구성 운영 - 진로진학부장 협의회 및 고교교장단 협의회 - 현장교사와의 정기적 교류 • 학생학부모 대상 설명회 및 상담 - 오프라인 카운슬링 프로그램 - 고교생 진로 탐색을 위한 인적성 검사 프로그램 • 진로진학상담 교사와의 연계활동 •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 고교-대학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역사문화 배우기 프로그램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경북소외지역 설명회 및 상담회 재학생 모교방문 프로그램 인재발굴 프로그램 그린나래 가이드스 고교방문 설명회 내방 설명회 지역별 박람회 • 교사 지역별 교사 간담회 진학담당교사 초청 입학전형 결과 설명회 설명회 및 연수 상시 운영 그린나래 가이드스 • 학부모 구경 설명회 고교 및 기관에서 요청 시 상시 운영

이상에서 대학마다 거의 유사하게 진로형 연계 중심으로 운영됨을 알 수 있는데, 각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질적인 성장이 요구되어 진다. 또한 대학은 교사협의체, 교사자문단, 진로진학상담교사 네트워크 등 고교 교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운영함에 있어 고교와 대학의 쌍방향 소통의 평등한 관계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입학사정관제 실시 후 입학사정관전형의 성과에 대한 연구[9][10]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은 낮고 상급학생으로 이행 후 GPA가 향상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는 연구[11][12]결과들은 고무적이다. 또한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 확대, 고등학교의 변화, 특별히 학교에서의 교과 외 비교과활동의 활성화, 진로진학지도의 활성화, 수업태도의 변화, 인성관련 태도 변화 등은 괄목한 성과이다.

정광희·조덕주(2011)는 고교-대학 연계를 학습형 연계, 선발형 연계, 연계시스템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외국의 고교-대학 연계 방식과 실천 사례 분석을 통해 일본은 주로 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며 교육청, 교육기관, 지역협의체, 기업 등이 협력하여 운영되는 반면, 호주는 대학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함을 밝히고 있다[8]. 또한 교육파트너로서 고교와 대학의 관계가 실제로 내용을 가지고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만남의 장을 활성화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009 교육과정은 학교 자율성과 창의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 개정되었는데, 기존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였다[13].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기록을 평가하고, 고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으로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효율적 운영을 꾀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연구[14-19]들을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습자의 총체적인 발달을 도모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영하·임호용(2008)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입학사

정관전형과 관련하여 일선 고등학교 8곳을 방문하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대학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의 구축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14]. 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대학의 입학사정관전형 간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대학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과를 반영하는 대학입학전형의 개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통과 기준의 확립,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전공 및 진로지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김미숙 외(2006)는 고교-대학 연계 활동 성공조건으로는, 조직 리더의 의지와 자발성, 조직 구성원의 후원과 지지, 지역사회 기반 활동, 대학 자율화와 고교 특성화를 들고 있으며 장애요인으로는 구성원 간 합의 부재,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교원순환 근무제도, 고교 교육과정 정책과 대학의 학부중심 운영 간의 갈등 등을 들고 있다[20].

김현진(2004)은 한국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입시위주의 암기 및 문제풀이식 교육이며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지식기반형 참된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안으로 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과 대입전형 연계체제, 고교대학연계전형을 제안하고 있다[21].

소성규 외(2014)는 진학담당교사 초청 및 방문, 입학사정관전형 체험활동, 진로 및 적성특강, 고교-대학 간 협의체 운영, 전공체험 프로그램, 봉사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분석결과를 밝히고 있다[22].

김대석(2010)은 대학 중도탈락률 분석을 통해서 본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에 대한 연구에서 대학은 전공수학능력과 중도탈락 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전공 적합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데 이는 국영수 점수나 총점이 아닌 진로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고 고교 교육과정부터 해당 교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한 학생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23].

이관희 등(2014)은 고교와 대학이 연계한 진로진학체험 프로그램 연구에서 진로선택의 도움정도가 큰 대학 방문 전공체험, 진로캠프 등을 적극적으로 개설하여야 함을 제언하고 있으며 이론 위주의 수업보다는 체험을 통한 진로진학체험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

하는데 더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24].

한옥영 외(2014)는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의 기회 확대 제공을 위한 온라인 교육 도입 방안 연구에서 UP의 온라인 교육의 도입을 위한 고등학생과 교사의 인식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 온라인 교육운영에서 고등학생과 교사 모두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간 교육기회 격차를 해소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창의적 인재양성 및 수월성을 위해 온라인 교육 도입 시 학생의 학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25].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목적 중 하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10]라고 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실현을 위한 정부-대학-고교의 노력은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대학교의 사례를 통해 고교-대학 연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1 설문조사 과정

고교-대학 연계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4학년도 입학한 K대학교 대학생, 서울·경기지역소재 고등학교 재직 교사를 대상으로 각각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K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 담당교수에게 연구 목적 및 설문내용을 설명한 뒤 학생대상 설문을 실시하였고, K대학교 교사자문단 및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교를 대상으로 교사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은 총 371명으로 응답자의 성별, 전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는 총 62명으로 응답자의 고교유형, 교직경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1.2 기술통계

가. 대학생

설문 응답자 371명 중 성별로는 여학생이 42.3%(157명), 남학생이 57.7%(214명)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유형별로는 입학사정관전형 13.2%(49명), 교과성적우수자전형 18.6%(69명), 논술우수자전형 14.8%(55명), 정시전형 43.4%(161명), 그 외 전형 9.4%(35명)으로 정시전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대학생의 배경변인 별 응답자 수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자	157	42.3
	남자	214	57.7
	무응답	0	0
	합계	371	100.0
구분		빈도	비율(%)
입학전형	입학사정관	49	13.2
	교과성적우수자	69	18.6
	논술우수자	55	14.8
	정시	161	43.4
	기타	35	9.4
	무응답	2	.5
합계	371	100.0	

나. 고등학교 교사

설문 응답자 62명 중 고교유형으로는 일반고가 75.8%(47명)로 자율형고나 특목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직경력은 15년 이상 59.7%(37명), 10~15년 미만 21.0%(13명), 3년~5년미만 9.7%(6명), 5년~10년 미만 4.8%(3명), 3년미만 3.2%(2명)의 순으로 15년 이상의 교직경력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고교 교사의 배경변인별 응답자 수

구분		빈도	퍼센트
고교유형	일반고	47	75.8
	자율형고	8	12.9
	특목고	6	9.7
	무응답	1	1.6
	합계	62	100.0
구분		빈도	퍼센트
교직경력	3년 미만	2	3.2
	3년~5년 미만	6	9.7
	5년~10년 미만	3	4.8
	10년~15년 미만	13	21.0
	15년 이상	37	59.7
	무응답	1	1.6
	합계	62	100.0

2. 조사도구

설문 문항은 대학생 대상은 고교-대학 연계 참여현황,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가 진로진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영역이다. 교사대상은 고교-대학 연계와 고교 교육과정의 관련성정도, 대학진학에 효과적인 고교-대학 연계, 고교교육 정상화에 효과적인 고교-대학 연계,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대학 연계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 영역이다.

표 4. 측정도구 구성(대학생)

구분	문항내용	측정기준	평균 (표준편차)
참여현황	1. 전공진로탐색 경험여부 2. 모의전형 경험여부 3. 입시설명회 경험여부 4. 입시상담 경험여부 5. 동아리 연계 경험여부 6. 봉사활동 연계 경험여부 7. 대학과목선 이수제(UP) 경험 여부	0=있음, 1=없음	
진로진학에 미친 도움 정도	1. 전공진로탐색 2. 모의전형 3. 입시설명회 4. 입시상담 5. 동아리 연계 6. 봉사활동 연계 7. 대학과목선 이수제(UP)	1-5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3.09 (.984)
배경적 특성	1. 성별 2. 입학전형	0=여자, 1=남자/ 입학사정관 전형(기준), 교과성적우수자전형, 논술우수자전형, 정시전형, 기타	-

표 5. 측정도구 구성(교사)

구분	문항내용	측정기준	평균 (표준편차)
고교 교육과정의 관련성 정도	1. 자율활동 2. 동아리활동 3. 봉사활동 4. 진로활동	1-5점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3.26 (.904)
대학진학에 효과적인 프로그램	대학진학에 가장 효과가 있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입시설명회, 전공진로탐색, 모의전형, UP	-
고교교육 정상화에 효과적인 프로그램	고교교육 정상화에 가장 효과가 있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전공진로탐색(기준), 모의전형, 입시설명회, 상담, 학습멘토링, UP	-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대학 연계 필요성 정도	1. 전공진로탐색 2. 모의전형 3. 입시설명회 4. 입시상담 5. 동아리 연계 6. 봉사활동 연계 7. 대학과목선 이수제(UP)	1-5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3.75 (.831)
배경적 특성	1. 고교 유형 2. 교직경력	일반고(기준) 자율형고, 특목고/ 3년미만=1, 15년이상=5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4학년도에 입학사정관전형, 교과성적 우수자전형, 논술우수자전형, 정시전형, 기타전형을 통해 입학한 1학년 재학생과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1학년 대학생의 전형별 고교-대학연계 프로그램 참여 실태,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친 정도 및 교사의 배경별 고교-대학연계와 고교 교육과정의 관련성, 대학진학에 효과적인 프로그램, 고교정상화를 위한 고교-대학 연계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 비교를 위하여 SPSS 통계 프로그램 20.0을 사용하여 교차분석(X^2) 및 일원분산 분석(One-way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재학생의 배경적 특성별 변인에 따른 차이

1.1 성별에 따른 고교-대학 연계 참여현황

성별에 따라 고등학교 기간 중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의 경험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유경험으로 ‘전공진로탐색’은 43.1%, ‘모의전형’은 32.0%, ‘입시설명회 참여’는 77.7%, ‘입시상담’은 71.3%, ‘동아리연계’는 26.4%, ‘봉사활동 연계’는 26.2%, ‘UP’는 4.3%로 나타나 ‘입시설명회 참여 및 입시상담 경험’을 제외하고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UP’를 제외하고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참여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진로탐색’ 경험은 여학생(49.0%)이 남학생

(38.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X^2= 3.914, p<.05$)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설명회’ 참여 경험은 여학생(83.2%)이 남학생(73.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X^2= 4.796, p<.05$)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 연계’ 경험은 여학생(31.8%)이 남학생(22.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X^2= 4.292, p<.05$)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성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경험 여부

		전공진로탐색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성별	여자	76 49.0%	79 51.0%	155 100.0%	$X^2= 3.914$ df=1 p=.031*
	남자	82 38.7%	130 61.3%	212 100.0%	
전체		158 43.1%	209 56.9%	367 100.0%	

		모의전형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성별	여자	57 36.5%	99 63.5%	156 100.0%	$X^2=2.612$ df=1 p=.067
	남자	60 28.6%	150 71.4%	210 100.0%	
전체		117 32.0%	249 68.0%	366 100.0%	

		입시설명회 참여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성별	여자	129 83.2%	26 16.8%	155 100.0%	$X^2= 4.796$ df=1 p=.029*
	남자	156 73.6%	56 26.4%	212 100.0%	
전체		285 77.7%	82 22.3%	367 100.0%	

		입시상담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성별	여자	112 71.8%	44 28.2%	156 100.0%	$X^2= .031$ df=1 p=.860
	남자	149 71.0%	61 29.0%	210 100.0%	
전체		261 71.3%	105 28.7%	366 100.0%	

		동아리연계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성별	여자	45 29.0%	110 71.0%	155 100.0%	$X^2= .934$ df=1 p=.334
	남자	52 24.5%	160 75.5%	212 100.0%	
전체		97 26.4%	270 73.6%	367 100.0%	

		봉사활동 연계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성별	여자	49	105	154	$X^2= 4.292$ $df=1$ $p=.038^*$
		31.8%	68.2%	100.0%	
	남자	47	165	212	
		22.2%	77.8%	100.0%	
전체		96	270	366	
		26.2%	73.8%	100.0%	

		UP 경험		전체	
		있음	없음		
성별	여자	5	152	157	$X^2= .873$ $df=1$ $p=.350$
		3.2%	96.8%	100.0%	
	남자	11	201	212	
		5.2%	94.8%	100.0%	
전체		16	353	369	
		4.3%	95.7%	100.0%	

*p<.05, **p<.01, ***p<.001

1.2 입학전형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가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친 정도

입학전형별 고등학교 기간 중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경험 여부가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입시상담’ 경험이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입학전형별로 분석한 결과 $F=3.6154(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입학사정관전형은 3.97로 가장 높게, 정시전형은 3.3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외 프로그램의 평균은 ‘전공진로탐색’은 3.03, ‘모의전형’은 3.14, ‘입시설명회’는 3.32로 평균보다 조금 높게, ‘동아리연계’는 2.90, ‘봉사활동 연계’는 2.87, ‘UP’는 2.58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입학전형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경험이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친 정도

		N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F
전공 진로 탐색	입학사정관	32	3.34	.827	2	5	1.440
	교과성적우수자	37	3.08	1.010	1	5	
	논술우수자	33	3.09	1.100	1	5	
	정시	79	2.90	.955	1	5	
	기타	21	2.86	1.014	1	5	
	합계	202	3.03	.982	1	5	
모의 전형	입학사정관	26	3.62	1.098	1	5	1.836
	교과성적우수자	32	3.22	.941	1	5	
	논술우수자	22	2.95	1.133	1	5	
	정시	66	3.05	1.073	1	5	
	기타	20	2.95	.999	1	5	
	합계	166	3.14	1.063	1	5	
입시 설명회	입학사정관	41	3.60	.802	1	5	1.619
	교과성적우수자	55	3.36	.910	1	5	

	논술우수자	45	3.22	.974	1	5	
	정시	121	3.21	.950	1	5	
	기타	27	3.44	1.086	1	5	
	합계	289	3.32	.944	1	5	
입시상담	입학사정관	37	3.97	.832	2	5	3.615*
	교과성적우수자	48	3.64	.999	1	5	
	논술우수자	43	3.69	.939	2	5	
	정시	115	3.36	.930	1	5	
	기타	24	3.37	.969	1	5	
	합계	267	3.55	.953	1	5	
동아리 연계	입학사정관	29	3.24	1.272	1	5	1.377
	교과성적우수자	28	3.11	1.197	1	5	
	논술우수자	19	2.74	1.368	1	5	
	정시	60	2.77	1.095	1	5	
	기타	14	2.57	1.016	1	4	
	합계	150	2.90	1.186	1	5	
봉사활동 연계	입학사정관	26	3.08	1.129	1	5	.601
	교과성적우수자	25	2.92	1.077	1	5	
	논술우수자	24	3.00	1.103	1	5	
	정시	58	2.76	1.097	1	5	
	기타	16	2.69	.946	1	4	
	합계	149	2.87	1.080	1	5	
UP	입학사정관	15	2.87	1.187	1	5	.544
	교과성적우수자	14	2.36	.929	1	4	
	논술우수자	11	2.27	1.191	1	5	
	정시	37	2.65	1.274	1	5	
	기타	11	2.55	1.293	1	5	
	합계	88	2.58	1.191	1	5	

*p<.05, **p<.01, ***p<.001

2. 교사의 배경적 특성별 변인에 따른 차이

2.1 고교유형별 고교-대학 연계와 고교 교육과정의 관련성

고교유형별 고교-대학 연계와 고교 교육과정의 관련성 정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전반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관련성 정도는 ‘진로활동’(3.70), ‘동아리활동’(3.46), ‘봉사활동’(2.97), ‘자율활동’(2.8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율활동’과 고교-대학 연계와의 관련성 정도를 고교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F=4.124(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고는 3.04로 가장 높게, 자율형고는 2.13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활동’과 고교-대학 연계와의 관련성 정도를 학교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F=3.993(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고는 3.89로 가장 높게, 특목고는 3.00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활동’과 고교-대학 연계와의 관련성 정도를 학교유형별

로 분석한 결과 $F=5.227(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고는 3.68로 가장 높게, 특목고는 2.50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고교유형별 고교-대학 연계와 고교 교육과정의 관련성 정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자율활동	일반고	47	3.04	.955	1	5	4.124*
	자율형고	8	2.13	.641	1	3	
	특목고	5	2.40	.894	2	4	
	합계	60	2.87	.965	1	5	
진로활동	일반고	47	3.89	.961	1	5	3.993*
	자율형고	8	3.13	.835	2	4	
	특목고	6	3.00	1.095	2	4	
	합계	61	3.70	1.006	1	5	
봉사활동	일반고	47	3.06	.845	2	5	1.346
	자율형고	8	2.75	1.035	1	4	
	특목고	6	2.50	1.049	1	4	
	합계	61	2.97	.894	1	5	
동아리활동	일반고	47	3.68	.958	2	5	5.227**
	자율형고	8	2.88	.991	1	4	
	특목고	6	2.50	1.378	1	4	
	합계	61	3.46	1.074	1	5	

* $p<.05$, ** $p<.01$, *** $p<.001$

2.2 고교유형별 대학진학에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고교유형별 대학진학에 가장 효과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응답자의 전체 평균은 ‘전공진로탐색’(49.2%), ‘입시설명회 및 상담’(34.4%)의 순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고교유형별 대학진학에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입시설명회 및 상담	전공진로 탐색	모의전형	UP	전체	
고교유형	일반고	13	24	7	3	47	$X^2=6.320$ $df=6$ $p=.388$
	자율형고	4	4	0	0	8	
	특목고	4	2	0	0	6	
	합계	21	30	7	3	61	
전체		34.4%	49.2%	11.5%	4.9%	100.0%	

* $p<.05$, ** $p<.01$, *** $p<.001$

2.3 교직경력별 고교교육 정상화에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교직경력별 고교교육 정상화에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은 [표 10]과 같다. 전체적인 응답비율

은 ‘전공진로탐색’(42.6%), ‘학습멘토링’(23.0%)의 순으로 나타났다. 3년~5년 미만은 ‘전공진로탐색’(50.0%)이, 5년~10년 미만은 ‘상담 및 컨설팅’(66.7%)이, 10년~15년 미만은 ‘학습멘토링’(38.5%)이, 15년 이상은 ‘전공진로탐색’(45.9%)이 타 프로그램 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X^2= 31.283, p<.05$)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교직경력별 고교교육 정상화에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전공진로탐색	모의전형	입시설명회	상담, 컨설팅	학습멘토링	UP	전체		
교직경력	3년 미만	1	0	0	0	1	0	2	$X^2=31.283$ $df=20$ $p=.042^*$	
	3년~5년 미만	3	1	0	0	1	1	6		
	5년~10년 미만	1	0	0	2	0	0	3		
	10년~15년 미만	4	0	3	1	5	0	13		
	15년 이상	17	5	6	2	7	0	37		
	전체	26	6	9	5	14	1	61		
	전체		42.6%	9.8%	14.8%	8.2%	23.0%	1.6%		100.0%

* $p<.05$, ** $p<.01$, *** $p<.001$

2.4 고교유형별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대학 연계의 필요성

고교유형별 고교-대학 연계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각 프로그램의 평균은 ‘전공진로탐색’은 4.15, ‘입시상담’은 4.13, ‘입시설명회’는 4.05, ‘모의전형’은 3.89로 평균보다 높게, ‘UP’는 2.98로 평균보다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동아리연계’의 필요성을 고교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F=10.124(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고는 3.85로 가장 높게, 특목고는 2.3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봉사활동 연계’의 필요성을 고교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F=3.714(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고는 3.49로 가장 높게, 특목고는 2.5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1. 고교유형별 고교-대학 연계의 필요성

		N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F
전공 진로 탐색	일반고	47	4.19	.798	2	5	1.129
	자율형고	8	4.25	.463	4	5	
	특목고	6	3.67	1.366	2	5	
	합계	61	4.15	.833	2	5	
모의 전형	일반고	47	4.00	.909	2	5	2.418
	자율형고	8	3.75	.886	2	5	
	특목고	6	3.17	.753	2	4	
	합계	61	3.89	.915	2	5	
입시설명회	일반고	47	4.04	.833	2	5	.620
	자율형고	8	3.88	.354	3	4	
	특목고	6	4.33	.516	4	5	
	합계	61	4.05	.762	2	5	
입시상담	일반고	47	4.17	.670	3	5	.784
	자율형고	8	3.88	.354	3	4	
	특목고	6	4.17	.408	4	5	
	합계	61	4.13	.618	3	5	
동아리 연계	일반고	47	3.85	.722	3	5	10.124***
	자율형고	8	3.63	.744	2	4	
	특목고	6	2.33	1.211	1	4	
	합계	61	3.67	.889	1	5	
봉사활동 연계	일반고	47	3.49	.856	1	5	3.714*
	자율형고	8	3.13	.641	2	4	
	특목고	6	2.50	1.225	1	4	
	합계	61	3.34	.911	1	5	
UP	일반고	47	3.04	.977	1	5	.498
	자율형고	8	2.88	.641	2	4	
	특목고	6	2.67	.816	2	4	
	합계	61	2.98	.922	1	5	

*p<.05, **p<.01, ***p<.001

IV. 요약 및 결론

요약

1.1 대학생

전반적인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율은 ‘입시설명회’, ‘전공진로탐색’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현황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전공진로탐색’은 여학생(49.0%)이 남학생(38.7%)보다 ‘입시설명회’는 여학생(83.2%)이 남학생(73.6%)보다, ‘봉사활동’은 여학생(31.8%)이 남학생(22.2%)보다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가 대학진학에 미친 영향을 입학전형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입시상담’ 경험

은 입학사정관전형은 3.97로 가장 높게, 정시는 3.3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입시상담’은 성공적인 대학진학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교사

고교유형별 고교-대학 연계와 고교 교육과정의 관련성 정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자율활동’은 일반고는 3.04로 가장 높게, 자율형고는 2.1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진로활동’은 일반고는 3.89로 가장 높게, 특목고는 3.00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활동’은 일반고는 3.68로 가장 높게, 특목고는 2.50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에 가장 효과적인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전공진로탐색(49.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직경력별 고교교육 정상화에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전체적인 응답비율은 ‘전공진로탐색’(42.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3년~5년 미만은 ‘전공진로탐색’(50.0%)이, 5년~10년 미만은 ‘상담 및 컨설팅’(66.7%)이, 10년~15년 미만은 ‘학습멘토링’(38.5%)이, 15년이상은 ‘전공진로탐색’(45.9%)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동아리연계의 필요성’을 고교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일반고는 3.85로 가장 높게, 특목고는 2.33으로 가장 낮게 ‘봉사활동연계의 필요성’은 일반고는 3.49로 가장 높게, 특목고는 2.5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결론 및 제언

첫째, 다양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의 참여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입시상담’ 프로그램이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여학생이 더 많은 대학정보와 전략으로 입시를 준비함은 성공적인 대학진학과 관계가 있다. 고등학교는 남학생들이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및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학은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홍보 시 남학생의 참여를 독려하고 해당고교 출신 재학생을 통한 합격 전략 및 학과소개를 통해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UP(University-level Program)에 대한 참여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수준의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한 후, 이수결과를 대학 진학 후 학점으로 인정받는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은 협약대학에서 인정하고 있다.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이수내용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가능하므로 학생부종합전형에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선점하고 잠재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오프라인 강의 외에 온라인 강의, 원격화상 강의, 튜터 지원 등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제공해서 지원자의 학습권 보장 및 지역 간 교육기회 격차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로 교수학습의 효율성 및 공정한 평가 운영 등 질 관리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고등학생들은 입시설명회, 입시상담 위주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져 보다 다양한 고교-대학 연계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수험생 및 학부모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개방해야 한다. 먼저 대학은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일정 및 운영내용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적어도 6개월 전 명확히 사전 공지함으로써 정보 접근의 용이성을 제공하고,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에 힘써야 한다. 평일이 어려운 수험생이나 학부모를 위하여 주말 입시상담을 운영하거나 부모님의 직장으로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및 상담 등으로 공급자 위주의 진행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편, 프로그램 진행 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과 고교 교육과정의 관련성을 창의적 체험 활동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진로 활동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형 연계로 편중되어 운영되는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의 내용을 학습 연계형, 선발형 연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사들은 고교-대학 연계 중 전공진로탐색 프로그램이 가장 큰 효과가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앞으로 전공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요구는 더욱 클 것으로 나타난다. 제한적인 고등학교 현장을 벗어나 학생들의 전공진로탐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학에서 경험하는 실습, 체험, 대학교수나 대학원생들과의 연구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등은 지적인 자극을 유발하고 도전정신 및 자기주도성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한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실시로 지역사회는 진로체험의 장으로 대학의 자원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 구성원 모두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지역사회-대학-학교의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홍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대학마다 인재상과 평가준거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은 충실한 고교생활 가운데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잠재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실시로 고교 현장에서도 정량적인 교과 성적으로 잣대를 세우지 않고 진로와 진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더 빨리 시작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더 폭넓은 진로탐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초등 진로전담교사의 전면 배치의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시키는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대학진학에 영향을 미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입시상담, 입시설명회, 전공진로탐색, 모의전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한 고교방문 입시설명회로만 홍보 전략을 세우는 것은 지원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입시상담으로 지원자가 알고 싶은 내용, 지원자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고교방문 입시설명회는 대학 입학팀의 직원이나 입학사정관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데 학과교수나 대학원생, 또는 재학생으로 팀을 구성하여 전공진로 탐색이 병행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정, 세부전공, 졸업 후 진로, 취업 전망, 비전제시, 학교생활 등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동아리연계, 봉사활동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 일반고 재직 교사는 가장 높게, 특목고 재직교사는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에 준비하는 학생의 비율이 일반고 학생보다 높지 않으므로 입시설명회 및 상담위주의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교별 특성, 입시전형 준비유형별 고교-대학 연계의 특색 있는 운영이 요구되어진다. 만약 방문 고교의 최근 지원현황이 학생부종합전형의 지원이 강세였다면 입시 전형방법, 대학의 선발기준, 인재상, 평가요소, 면접방법, 합격 및 불합격 사례 등과 함께 모의 면접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지원자의 면접준비 정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여덟째, 대학은 모의전형 프로그램 기회를 더 많은 지원자에게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모의논술, 모의면접, 모의적성고사 등의 활성화는 노출된 사교육으로부터 일정부분 공교육으로 흡수하고 수험생 및 학부모의 입시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다. 온라인 모의전형의 실시 및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개방적인 정보 제공 등은 시간적, 경제적, 지역적, 공간적 문제의 취약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은 학생의 능력 외 다른 요인들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선진적인 대입전형을 운영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아홉째, 대학입학 선발 전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 수험생들이 진로진학 준비가 용이할 수 있도록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충실성이 요구되어진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일정부분은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할당하고 무료체험 운영 등 적극적 지원을 통해 대학의 책무성 실현 및 사회적 통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 201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 발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5.
- [2] 정광희, 박병영, 조덕주, 한혜정, 이관희, 윤나경,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VII): 고교-대학 연계 실천 모델 및 운영 방안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2010.
- [3] 정광희, *고교-대학 연계의 다양한 모델현안보고*, OP2011-03-19, 한국교육개발원, 2011.
- [4]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개편안*, 교육인적자원부, 2004.
- [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 *대입전형선진화를 위한 공동선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9.
- [6] 김경화, *대학입학전형의 사교육 영향 평가*, 미간행물, 2016.
-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0.
- [8] 정광희, 조덕주, *외국의 '고교-대학 연계' 방식과 실천 사례 분석-일본과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제21권, 제3호, pp.23-49, 2011.
- [9] 김무봉, 김경범, 김권섭, 김원명, 박성용, *입학사정관제 증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R2011-19-366, 2011.
- [10] 오성근, *입학사정관제 도입 성과와 발전과제(입학사정관제 도입 5년: 성과와 발전과제)*, 입학사정관제 성과보고 컨퍼런스 자료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 [11] 양명희, *입학사정관제의 성과: 입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입학사정관제 도입 5년: 성과와 발전과제)*, 입학사정관제 성과보고 컨퍼런스 자료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 [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사정관제 5년간의 성과 및 발전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 [13]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09.
- [14] 조영하, 임호용,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과 대학입학사정관전형 연계 방안 탐색-교사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제43권, 제2호, pp.197-225, 2012.
- [15] 이광우,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급별 창의적 체험활동 모형 개발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

- 원, 2010.
- [16] 이미숙, *미래사회 대비 국가수준 교육과정 방향 탐색-창의적체험활동(CRC 2013-2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 [17] W. Camp, "Participation in student activities and achievement: A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83, 1990.
- [18] M. Grabe, "School size and the importance of school activities," *Adolescence*, Vol.61, 1981.
- [19] L. Otto,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aspirations in the status attainment process," *Rural Sociology*, Vol.41, 1976.
- [20] 김미숙, 박소영, 강영혜, 이희숙, 황여정, *고교-대학 연계 사례연구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2006.
- [21] 김현진, *새로운 인재선발방식, '고교대학연계전형'을 제안한다*, 교육개발 1월 143호, 2004.
- [22] 소성규 외, *고교-대학 연계 강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 대진대학교, 2014.
- [23] 김대석, *대학입시 현황과 대학 중도탈락률을 분석을 통해서 본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 [24] 이관희, 고백순, 소성호, 최은주, *고교와 대학이 연계한 진로진학체험 프로그램 연구*, 한동대학교, 2014.
- [25] 한옥영, 정미현, 김재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의 기회 확대 제공을 위한 온라인 교육 도입 방안 연구," *JICS*, 제15권, 제3호, 2014.

저 자 소 개

김 경 화(Kyung-Hwa Kim)

정회원



- 1988년 2월 : 홍익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2000년 2월 : 홍익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6년 2월 : 홍익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6년 4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관심분야> : 학습조직, 교육평등, 고등교육정책, 평생교육 등